

북한개발소식

2024 MAY

05

통권 223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교육과 다음세대

탈북민 수기

손이슬 자매 (제 2화)

북한뉴스

김일성 우상화에 ‘태양’ 떼는 북, 김정은엔 “주체 조선의 태양”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의 교육과 다음세대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4 MAY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교육과 다음세대

- 권두칼럼 01** 북한의 교육과 다음세대
- 칼럼_1 10** 신호숙_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
- 칼럼_2 16** 채경희_ 김정은 시대 교육과 다음 세대
- 칼럼_3 22** 함승수 _ 북한, 사교육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 탈북민 수기 30** 손이슬 자매 (제 2화)
- 북한뉴스 34** 김일성 위상화에 ‘태양’ 때는 북, 김정은엔 “주체 조선의 태양” 외
- 서평 37** The Lazarus Heist: From Hollywood to High Finance: Inside North Korea's Global Cyber War
- 북한 기도 제목 39** 실력이 강조되는 북한의 교육이 경쟁 지상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외



교육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국가적 화두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되는 자원도 막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담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이다.

북한은 어떨까?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따라 무상교육, 전반적 의무교육을 표방하는 북한이기에 우리네 교육에서 보이는 심각한 경쟁보다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북한 사회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만큼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북한을 바라볼 때 교육 이슈는 현재 북한의 국가 운영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통일의 주역이 될 다음세대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북한의 다음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이 어떠한 교육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떤 장래를 그리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교육 여건이 북한의 다음세대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확대된 수재교육... 평등에서 경쟁으로

북한은 건립 초기에는 사회주의 교육철학에 따라 무상의무교육을 표방해왔다.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의

의무교육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 교육의 키워드는 평등이나 의무교육 보다는 ‘수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북한은 수재교육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을 천성적으로 월등한 자와 열등한 자로 갈라놓음으로써 본질에서 근로인민의 자녀들의 열등성을 론거짓고 합리화하여 교육의 차별을 기초지으려는 반동적 견해”¹라는 비판은 북한이 수재교육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보여준다. 이런 기초 속에서 수재교육은 일부 외국어나 예체능 부문을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집권 이후 이러한 교육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4년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 제1고등중학교가 설립되고 그 다음해에 각 도 소재지마다 총 12개의 제1고등중학교가 설립되면서 북한에서 수재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1중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수재교육이 북한 교육에 전면에 등장하게 된 데에는 북한의 고질적인 인재난, 특별히 기술/과학 인력의 부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존의 정치사상교육 중심의 평등지향적인 교육이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면서 그 대안으로 엘리트 교육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일은 교육 영역에서 출신 성분보다는 실력에 비중을 두는 “광폭정치”를 펼치면서 엘리트 양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일은 평양 제1고등중학교에 대하여 “평양 제1고등중학교 학생모집사업은 철저히 실력본위로 할 것”, “졸업자들은 누구나 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리과대학에 추천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자연과학학부에만 보내고 사회과학학부에는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실력 중심의 운영방침과 과학 분야 인재 양성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² 이후 제1중학교 제도는 더욱 확대되어 1999년에는 전국의 시·군·구역마다 제1중학교를 1개교씩 추가 신설하는 조치가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제1중학교는 전국에 200여개 가량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등교육 기관은 일반 고등중학교 < 시·군·구역 제1중학교 > 도 제1중학교 < 평양 제1중학교로 서열화되었다. 그렇지만 이중 시·군·구역 제1중학교는 2009년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었다.

학교의 서열화는 대학 입시와도 맞물려있다. 북한에서 대학 입학은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 심하고, 자신이 속한 계층 안에서 사회적 이동을 도모하기 어렵다. 거주지나 배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장 배치도 개인의 의사나 적성과 무관하게 부모의 거주지와 직업에 따라 유사하게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꽉 막힌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학 졸업이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사회 통념상 대학을 졸업하면 “계급이 달라지고” 사람을 부르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³ 대학 졸업은 입당, 군복무와 함께 당간부가 되기 위한 기본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 간부를 꿈꿀 수 없는 학생들도 대학 교육을 통해 의사 등 전문기술직이 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러한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주로) 도시 지역 기업소로 직장을 배치 받고 거주지도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북한에서는 통상 학생의 10~15% 정도의 소수의 인원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대학 입학 역시 출신 성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출신 배경의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시험’을 통한 실력이 강조되고 있다. 당국도 대학입학시험 본고사에 컴퓨터 원격시험을 도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보강하는 등 정당한 실력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⁴ 대학 진학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학생 간 경쟁은 자연스럽게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제1중학교 입학에서부터 시작된다. 북한의 대학입시는 정무원 시험이라고 불리는 대학예비고사를 보고, 성적에 따라 학교 전체의 10% 이내에서 ‘폰트’라 불리는 대학입학추천서를 받아 대학본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제1중학교의 경우 대학예비고사를 치르지 않고 모두 본고사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다만 원하는 대학이 아닌 교내 시험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대학을 추천받는 방식이다.⁵ 일반중학교에 비해 우수한 교육시설과 교사진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본고사를 치를 수 있는 혜택까지 있다 보니 대학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과 좋은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역의 제1중학교 진학을 목표로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에 매진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사교육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오히려 사회적 권력과 직

1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 사회과학원출판사, 1975, 87-88.; 차승주 (2019), “북한의 시대별 교육담론”, 통일인문학 제 79집(2019.09), 265. 재인용

2 김정일, 『과학교육사업을 반전시키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78.; 차승주 (2019), “북한의 시대별 교육담론”, 통일인문학 제 79집(2019.09), 266. 재인용

3 조정아 외(2023),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23-19, 176.

4 김혜진(2023), “김정은 정권의 대학입시문화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 16권 2호, 57-58.

5 앞의 글, 56.



〈평양 제1중학교〉

책이 있는 당간부들이 자녀들의 사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⁶ 거기에 더해 경제력이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약했던 돈주들도 자녀교육에 적극적이다. 북한에서는 돈주들의 경제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언제든지 범죄자로 찍힐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돈주들은

자녀들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이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교사 생활만으로는 생활이 넉넉지 않다보니 실력 있는 교사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사교육에만 전념하거나 학교 일이 끝난 후 재량껏 사교육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교육열의 증대는 북한 당국이 표방하는 인재양성과 맞물려 모종의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다. 김정일 시기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과학기술중시 정책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기치 속에 강성국가 건설의 핵심내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은 과학 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육이 중요하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체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점 사항이다. 김정은 정권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부르짖는 가운데 내부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원 자원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과학, 기술 발전과 관련 인재양성인 것이다.⁷ 북한은 평양시내에 대대적으로 과학기술자와 교육자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권 차원에서 해당 영역을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주민들도 이공계 대학 진학에 힘쓰는 등 생존과 적응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이다.⁸ 이런 맥락에서는 북한에서 부는 교육열은 국가의 인적자본 축적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다음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기존 북한에 대한 통념과는 분명 차별화 된 현상이다.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이 무색하게 교육 분야에서의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으며, 이전의 집단주의와 인민대중에 대한 강조에서 이제는 소수의 엘리트, 영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2023년 ‘수재교육법’을 제정하여 의무 교육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 일정 부분 변화를 주는 등 수재 교육 중심의 발전 전망 계획을 세우는데 힘쓰고 있다.⁹ 북한의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전후 북한의 영화와 TV드라마 중 아동·청소년을 주연으로 한 작품들을 분석한 연구¹⁰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인공을 집단에 헌신하는 집단주의자로 설정했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영재’로서 교사의 관심과 지원을 독차지하며 자기 개인의 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들은 영재들의 ‘꿈’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려보였지만, 이들의 꿈은 김정은 원수님의 “충성동이”로서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북한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다음세대의 표상은 김정은 시기 북한이 국가 운영 방향으로 엘리트 양성과 이들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위선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 증대도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경제난 이전 북한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진로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 국가에서 직업을 출신에 따라 배정해주는 환경 속에서 자녀의 진로는 학교와 담임교사들에게 맡기고 부모들은 가정교육을 잘 하고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보조자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학교 교육 시스템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더 이상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수 없게 되었다. 부모들은 학교 운영의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심지어 담임교사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여성들의 시장 활동 활성화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교육 정책이 수재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대학입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지역의 제1중학교 입학에서부터 더 좋은 대학과 직업 배치까지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¹¹

6 조현정(2022),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 활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교육과학연구 제53권 제4호, 112.

7 김정호, 조윤영(2022),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과 ‘과학·기술·교육’의 역할”,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8, No.1, 2022, 246-247.

8 김혜진(2018), “북한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27-129.

9 인재 육성 위한 ‘수재교육법’ 제정으로 교육 과정 일부 개편, 데일리NK (2023.05.09.), <<https://www.dailynk.com/20230509-2/>>

10 안지영(2021), “제한된 꿈에 갇힌 희망의 아이콘: 김정은 시기 북한 영화와 TV드라마 속 아동·청소년 형상”, 통일인문학 제 86집(2021.06.), 241-291.

11 조현정(2022), 앞의 글, 119-123.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고급중학교 학생들이 국가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있다. (조선중앙TV)〉

국가는 국가 발전과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수재, 영재 교육을 장려하고, 부모들은 자본과 인맥을 동원하여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제공하고 제1중학교 입시에서부터 대학 입시까지 자녀의 앞날을 설계하는 현 북한 교육의 풍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철저한 성분 제도를 고려했을 때,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

마 좀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꿈꿀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과거에도 정치 상황에 따라 출신 성분이 좋지 않더라도 실력에 따라 중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현재의 국가의 교육 체제와 대학 입시 제도와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여전히 출신 성분의 영향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성분이 특출나지 못하더라도 실력이 있다면 ‘시험’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전문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변화일 것이다.

북한이 고등 교육을 확대하고, 그 방향이 과학, 기술 등 실용 학문이라는 사실도 눈여겨 볼 점이다.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교육 방향은 영어와 컴퓨터/IT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우대하는 등 실용 학문 중심이다. 거기에 더해 대학 원격 교육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가적으로 고등 교육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¹²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교육열 상승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포함한 북한 주민 전반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개인의 의식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다음세대를 향한 북한의 철저해지는 사상 교육과 통제는 북한 교육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북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존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이상화 과목에 더해 김정은 이상화 과목이 추가되었다. 정치사상 과목은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는 16~17%, 대학교에서는 25~3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정은은 선대 지도자들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은 더욱 철저한 사상 확

립과 비사/반사회주의 문화 척결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교육도 철저하게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서,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개인의 정체성이나 비전, 그에 따른 적성에 맞는 진로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 와중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직접적으로 청년들을 지칭한 ‘청년교양 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상 통제의 노력을 강화하는 등 청년층의 사상 이완을 막고자 애쓰고 있다.

소수 인재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과 심화되는 경쟁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북한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이 다음세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남한 역시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실감해왔던 문제이다. 특히 북한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은 남한의 그것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 영역에서 북한의 불평등은 남한의 그것보다도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제로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에 돈이 없다 보니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거의 전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형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갖가지 돈이나 물품을 내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행하는 동원 노동에 있어서도 학부모가 재력이 있는 경우 학교에 돈을 내고 자녀들의 동원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상당시간 동원을 나가게 되어 공부에 힘쓰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 격차는 지역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차이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학교 운영이 중앙의 지원 대신 지방 재정과 지역의 기관·기업소·단체 후원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격차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¹³ 이러한 교육 불평등과 서열화 이슈는 이미 북한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서열화로 인한 문제로 인해 2009년 중앙과 도별로 1개씩 설치된 26개의 제1중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¹⁴ 북한 당국은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교육 부분 과업으로 지속적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오히려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¹⁵

부모의 재력과 배경에 따른 불평등한 학교 경험과, 이로 인한 물질주의에 경도된 왜곡된 가치관의 확산도 우려스럽다. 북한 청년 세대에 대한 연구¹⁶에 따

13 조현정(2024), “북한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한계”,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24-31 (24.04.16), 5-6.

14 김유연(2014), “북한 제1중학교 정책 실태 및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

15 조현정(2024), 앞의 글, 1-2.

16 조정아 외(2023), 앞의 글, 163-189.

12 김은정(2023), “김정은 시대 전민과학 기술을 통한 인재화의 꿈”, 통일인문학 제 96집 (2023.12.)

르면 근래 북한의 청년들은 학교교육의 경험을 통해 ‘돈의 가치’가 평등과 공정의 가치보다 앞선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의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성분에 따라 차별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시작부터 서로 다른 진로를 설계하게 된다. 실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부모가 지원하지 못한다면 제1중학교 진학이나 대학 진학을 꿈꾸기 어렵기에,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실력보다 부모의 능력이 우선시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진학률이 낮은 북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지 않는 가운데 획일화된 체제하에 교사의 체벌, 노동 투입 등에 시달린다. 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대학 입학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즉 다수의 북한 주민들과 다음세대는 부모의 경제력과 출신성분에 따라 자신의 장래가 결정되는 계급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비록 성분에 따른 차별은 있었을 지언정 국가의 배급으로 너도 나도 비슷하게 살았던 과거보다도 더욱 실제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북한의 교육과 다음세대를 살펴보면 우리는 앞으로의 북한 사회와 다음세대, 더 나아가 통일을 바라보며 여러 기도제목을 생각하게 된다.


먼저 북한의 교육열이 북한 주민들과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를 통해 그동안 절대적이었던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모습인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의 철폐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높아진 교육열에 따른 교육 수준 향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의식이 신장되고 북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전에 비해 약해지는 출신 성분의 굴레, 높아지는 지식수준, 그리고 당국의 엄격한 통제에서 오히려 확인되는 외부 정보와 미디어의 북한 유입은 향후 북한의 다음세대 복음화에 있어서 일종의 ‘공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여전히 철저한 사상 교육, 지도자 우상화 강화, 강력한 사회 통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다음세대,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부모의 지원을 통해 자기 삶을 개척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학문을 통해 더욱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

었고, 암묵적으로 외부세계의 정보와 미디어를 접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의 공간’이 이들을 이전 세대가 가졌던 사상적 경직성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 선교적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드릴 마음의 문이 넓어지는 효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또한 여전한 북한의 우상화 교육, 반기독교 교육, 증오 교육이 중단되고 다음세대를 향한 당국의 사상통제와 억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심각해지는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수재교육’ 기조 속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고 특별히 소외계층이 빈곤과 교육 기회 박탈이 아닌 사회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더 나아가 북한의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다음세대 전반에서 복지가 증진되고 배움의 문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별히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는 이들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다음세대는 김정은 정권이 이야기하는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되는 소수의 영재와 다수의 평범한 대중이 아닌, 또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경쟁과 승리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참으로 귀한 자녀이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하루 속히 북한의 다음세대 전반에 편안하게 전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다음세대 중 가지지 못한 이들은 더욱 확대된 불평등으로 인해 절망하고, 가진 자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함이 아닌 국가의 방침과 더 나은 지위를 위해 매진하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자.

이와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북한의 교육열과 불평등 문제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을 뿐, 우리의 다음세대도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연 교회는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해왔는지, 아니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경쟁 속에 방치했는지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며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다음세대에 복음과 비전을 온전히 제시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주를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

신 효 숙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민대학교)

1.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은 국가발전전략과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국가 경제 발전정책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2012~2015년 기간은 김정은 집권 초기로 경제부문 개혁과 정책의 준비기로, 이 시기에 12년제 학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2016~2020년은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로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직업 기술교육이 강조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내 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기존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되던 시기이다.¹ 2024년에는 지방발전 20×10정책을 추진하며 지방경제 분권화와 자립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시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추진해가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첫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과연 어떤 정책을 발표할까. 정치도 경제 문제도 아니었다.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교육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 11년제를 12년 의무교육제로 개편한 것이다. 취학전 교육 1년과 소학교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중학교 6년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구분해 12년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였다. 12년제 의무교육은 2016년까지 4년간 개편과 정비과정을 거쳐 2017년 1학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 황진태·홍민·강채연·최용호,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통일연구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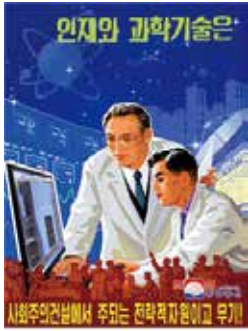
〈표〉 김정은 시대 주요 경제발전전략과 교육환경의 변화

구분	주요 경제발전전략	교육정책	법률개정
1	- 새로운 경제정책 준비 (2012~15)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지식경제시대	- 교육체계 개편(2012) 12년제 의무교육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교육	-개정 「교육법」 (2015) 「고등교육법」 (2015) 「교원법」 (2015)
2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2016~20) 과학기술강국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시행(2017) 직업기술교육 도입	-제정 「교육강령집행법」(2016) 「직업기술교육법」 (2018) 「원격교육법」(2019)
3	-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2021~25) 지방경제분권화, 자립화	- 직업기술교육과 지역교육의 발전 - 교육정보화 확대 - 사상교육 강화	-제정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육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특히 중학교 6년을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분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고급중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성이나 산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직업 기술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이다. 이는 국가경제발전전략 차원에서 현장중심의 기술인재들을 육성하려는 전략에서 출발한다. 이 방침에 따라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첫해인 2016년에는 핵심 경제분야로 전력, 금속, 석탄, 과수, 농수산 분야에서 먼저 100여 개의 기술고급중학교가 설립되었다. 2022년부터는 경제발전5개년전략(2021~2025)에서 지방경제의 분권화와 자립화가 핵심경제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시, 군 단위 고급중학교에 선별적으로 기술반이 조직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에 과학기술 발전이 국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고 강조한다. 김정은은 2014년 9월 5일, 전국교육일꾼대회 담화문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이 되는 것”을 새 교육혁명의 목표로 제시했다. 2015년에는 「교육법」 제8조 “온 사회의 인테리화원칙”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원칙”으로 수정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이라는 점을 법에 명시하였고, 2019년 4월 「사회주의 헌법」 개정 시에도 이를 반영했다.² 정보산업시대에 ‘세계적 교육 추세’에 맞는 교육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투자 확대, 교육의 현대화와 정보화, 대학교육 강화, 과학기술 인재 양성, 의무교육 연장, 중등교육의 다양화 및 직업화, 토론식 교수방법 등 교

2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통일연구원, 2020).



〈북한의 과학기술과 인재를 강조한 선전화〉

육정책과 학교교육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경험

12년제 학제개편에 따라 2013 개정 교육강령이 발표되었다. 사회적 변화 요구를 반영해 ‘영어’, ‘컴퓨터’ 과목의 수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북한이 정보화, 세계화의 방향을 교과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기존과 비교해 볼 때, 나선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교급 간, 학년 간 교육내용의 계열성을 확보하고,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이 ‘자연과학’ 과목으로 통합해 부분적으로 통합형 교육과정을 적용했고, 사고력, 탐구력, 창조력 등과 관련된 지식의 활용능력을 함양하고자 했다. 교과서 내용의 전개방식과 삽화, 인쇄 등 외형적 측면을 개선하고 그에 맞는 교육방법을 장려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상화 교육은 더 강조되었다. 소학교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린시절’ 과목이, 초급과 고급 중학교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과 ‘혁명력사’ 과목이 신설되었다.³ 또한 일부 제1중학교, 대학교에서 실시하던 선택과목제를 2024년 새 학기에는 일반학교의 선택과목제, 대학의 완전학점제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선택과목제는 학생들의 소질에 따라 문과, 이과, 예능, 체육, 기술 등 여러 분야의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이고, 완전학점제는 학업 연한과 관계없이 규정된 총 학점을 받으면 대학졸업자격을 받는 제도다.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육 정보화와 현대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교육목표를 천명한 이후, 2015년경부터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컴퓨터와 TV, 교내망 등 멀티미디어 교수 여건을 독려하고 있으며, 2017년경부터는 고급중학교 졸업시험을 컴퓨터로 실시하는 등 교육정보화 및 원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 4월 「원격교육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교육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각 도·시·군의 전자도서관, 공장 기업소의 과학기술보급실을 이용해 학생들의 원격교육을 보장토록 했다. 그러나 원격교육은 교육의 기회와 재교육 등 장점에서 불구하고 농촌과 외진 지역의 기업소, 마을 등에는 컴퓨터망이 잘 연결되지 않아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생들은 김정은 지도자와 당에 충직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양성되고 있다. 학생들은 과연 국가의 교육목표를 내재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을까. 청소년들은 북한사회의 시장화가 이미 학교 교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는 이미 간부와 비간부,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 등으로 서열화가 조장되고 있다. 학생들은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배우고 받아들이지만 학교 내외의 비공식적 관계 경험 속에서 이와 배치되는 생각과 행동을 습득하고 있다. 이들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직장 배치가 국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르기보다 가정의 경제력과 사회적 인맥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경험한다. 사교육은 불법에 해당하지만 학부모의 교육열과 교사들의 생계 필요성이 결합되어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난과 시장화를 겪으면서 학생들의 의식 속에 개인주의, 물질주의, 가족 중심주의 등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보니 김정은 시대에 정치사상에 대한 강조와 통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사상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 법 제정을 통해 사상과 문화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평양제4소학교 학생들이 각자 유선망이 연결된 노트북을 열고 수업을 받고 있다. (RFA/연합뉴스)〉

3. 교육 격차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

김정은은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2024.1.15)에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10년 내에 건설해 지방주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배경에는 도시-농촌, 평양-지방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하고 취한 조치로 보여진다. 통일부가 2024년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서 북한이탈주민 총 6,3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생활수준에 있어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식량과 생필품 배급의 혜택이 평양에 집중되었고, 가구 내 전자제품과 정보기기 보유율과 보건의료 경

3 홍후조·민부자·신호숙·이인정·조정아, 『남북한 교육과정 총론 비교와 전망』(교육부, 2015), 195-238;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4 북한 각급 학교 오늘 개학...“선택과목제 시험적 실시”, 『연합뉴스』 2024년 4월 1일자.

험률 등에서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드러났다. 특히 교육환경과 관련해, 컴퓨터, 핸드폰, CD 보유율, 사교육 비율에 있어서 격차가 두드러진다.⁵

제1중학교의 경우, 교실마다 컴퓨터,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학교망이 갖추어져 있는데 비해, 중소도시 외곽의 학교나 농촌학교에서는 컴퓨터가 부족하거나 컴퓨터가 있더라도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실습수업을 자주하지 못했다. 학교의 기초식수와 위생시설에 있어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컸다. 중소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은 학교에 수도시설이 없어, 가정이나 외부의 수도 시설에서 물을 길러왔으며, 화장실의 경우에도 남녀 칸막이 구분은 있지만 수도시설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만 갖추고 있었다.⁶

북한은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새로운 농촌정책에서 농촌지역을 모델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는 정책적 수단은 경쟁과 동원이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특정지역, 특정학교를 중심으로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등 교원들의 경험교환이나 경쟁에만 의존하고 있고, 지역단위나 학교단위에 맡기고 있다. 기관, 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학교 후원 사업은 특별한 본보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학부모의 세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⁷ 본보기 지역과 학교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정책은 지역별, 학교별로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도시와 농촌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학교별, 학생간 교육의 질적 격차로 재현되고 있다.

4. 김정은 시대 북한교육 변화의 시사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교육 변화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12년제 학제개편은 남북한 교육제도통합의 관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남북한 초등교육기간의 격차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북한 학제가 국제표준학제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중학교 6년제를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였고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기술고급중학교를 신설 확대하였다. 이로써 북한도 고급중학교 단계에 중등 직업

기술교육을 이수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개편이 의무교육 연장, 중등교육의 다양화 및 직업화, 창의적·토론식 교수방법, 국가적 투자 확대, 교육의 현대화와 정보화, 대학교육 강화, 과학기술 인재 등으로 나타나지만 정치사상교육이 이러한 성과를 가로막고 있다. 교육의 전개방식이나 외형적 모습이 교육적 원리를 반영하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려고 하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도자 우상화 및 정치사상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을 시발로 오히려 사상통제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셋째, 북한교육은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투자 보다는 현장의 경쟁과 동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는 지역별, 학교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인프라 구축도 지역단위나 학교단위에 맡기고, 교원들의 경험교환, 경쟁 등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 지역에 교육예산을 투자하고 교육인프라와 교육내용의 개선을 주도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악한 인프라 및 국가의 선택적 개입과 투자 정책은 오히려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격차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넷째, 북한 청소년은 공식적 학교교육 경험에서 지도자와 당에 충직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양성되지만,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습득하는 비공식 교육, 잠재적 교육을 통해서도 가치관과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지도자, 당, 국가를 결사옹위하는 애국주의 정신은 북한사회의 지배적 가치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가가 배급을 보장하지 않고 시장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제중심적 가치관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한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고 학생들의 기본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관심과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시대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빈부 격차에 따른 전력과 난방, 식수, 컴퓨터, 교육기자재 등 학습환경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정부의 선택적 개입과 투자정책이 교육 격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자녀세대를 향한 교육열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 북한의 부모와 자녀세대가 더 나은 삶을 향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인식하고 기본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남북 교육교류의 문이 열릴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5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통일부, 2024).

6 조정아·박민주·조현정·황진태,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통일연구원, 2023), 140-145, 88-92.

7 황진태·홍민·강채연·최용호, 앞의 책, 192-194.

김정은 시대 교육과 다음 세대

채 경 희 (충신대학교 교수)

1. 김정은 시대 교육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수립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제'(1975년)가 실시된 지 37년 만의 단행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다. 당시 교육법령 선포에는 여러 속사정을 담지한다. 김일성 탄생 100돌인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정해놓고 주민들을 설득해왔지만 나아진 것이 하등 없는 경제사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한껏 고조된 상태였다. 인민생활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교육의 연장시도는 김정은의 '은덕'을 가시화할 수 있는 빠른 조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말미암아 교육현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완전히 끊기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교육의 물적 토대가 악화된 것도 교육개혁을 필요로 하는 요인이었다. 학교 현장은 파괴되어가고 교육 기자재와 실험기구들이 메말라 갔다. 교과서와 교복 공급이 끊기고 공책과 연필 생산이 중단될 정도였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먹이 삼는 교육현장은 국가의 방기로 '공교육의 괴멸'을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보통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밥이 공짜, 치료가 공짜, 교육이 공짜'라는 '지상낙원' 정책을 펼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다. 1990년대 구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이후에도 수령과 그 후계자 덕분에 사회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국가라고 자처해 온 북한이 인민에게 밥과 치료, 그리고 교육 중 그 어느 것도 공짜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주민들에게 신선함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김정은은 출범 이후 교육일꾼대회를 연이어 소집하고 줄곧 교육을 강조해왔는데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현 시대는 지식경제 시대인 것만큼 그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나섰다.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후 36년 만에 개최)에서도 '교육사업의 질 개선'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특히 12년제 의무교육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교육환경의 개선 등이 언급되었다. 그 정책과제로서는 창조적 인재 양성,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 기술교육 강화, 교종체계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일반중등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의 '무상교육 낙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일까?

레닌이 "혁명의 역사는 학교에 의하여 공고해지며 미래 세대들의 훈련은 혁명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을 정착시킨다"고 언급했듯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학교는 다음 세대를 혁명가로 성장시키는 훈련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음 세대의 '준비 정도'는 체제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강력한 정치사회시스템을 요구하는 북한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 체제유지에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북한 교육의 목표는 "풍부한 지식, 건장한 체력, 도덕적 소양을 갖춘 공산주의 인간"을 양성하는 것으로 표면화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령(김정은)에게 충직한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령께 충실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과 같은 1인 체제 하에서 수령은 개인에게 사회정치적생명을 부여하고 그 사회정치적생명은 무한하다는 논리로써 승화돼 이를 교육을 통해 체내화 시켜야 한다. 따라서 중등 일반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김정은께 끝없이 충직하고 김정은을 위해서라면 자폭할 수 있는 총폭탄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김정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마구잡이식 동원(농촌 및 건설현장)과 세외부담(각종 물자 및 액상 부담)이 과중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졌으며 교사들의 자긍심은 종적을 감춘 지 오래다. 김정은의 교육개혁은 관성처럼 이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리적 현상들에 제동을 걸고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을 줄이며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획책한다. 전술한 교육개선, 즉 12년제



〈2010년대 초반 출판된 위상학 교과서〉

의무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려면 그 관건은 교육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튼튼한 국가재정일 것일 터, 그것이 턱없이 불확실하다는 현실이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북한당국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을 발전시키려면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주며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교육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교육 사업비 지출을 결정적으로 늘리고 교육에 필요한 전기와 설비, 실험기구,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도서들을 원만히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부문 인쇄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종이를 비롯한 자재와 전기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를 새로 건설하거나 중축하며 자동차와 트랙터, 컴퓨터, TV 등 교육설비와 실험기구 기자재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늘 그래왔듯이 북한당국은 시범학교를 설정하고 여기에 물자를 집중하여 보여주기식으로 세팅해 놓은 후에 이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방법을 편용하곤 한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어 되레 그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령도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면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한편 김정은 정권이 단행한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상과목 비중은 여전히 높다. 2014년과 그 후 교과편성 개편에서 김정은은 관련 교과를 추가하여 정치사상교과의 비중을 늘렸으며 현재 고급중학교의 경우에 김씨 일가와 관련된 교과목만 4개¹로 주당 수업시수는 6시간에 달한다. 수령과 그 일족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2시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2시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1시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력사(1시간)

1960년대 중반,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연구실’을 만들고 김일성의 ‘혁명전통’교육을 강화하며 그 후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내온지도 60년의 시간이 흘렀다.

북한은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여 창조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 인간 육성, 정보교육 강조, 영어과의 초등학교 필수화 및 시수 확대, 비교과의 체육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은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몇 개 또는 일부를 제외한 전반적인 교육의 물적 토대와 질적 수준을 제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교육의 빈곤 지대에 방치돼 있다.

2. 북한의 다음세대

김정은 정권은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를 수령께 충실한 혁명가로 양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의 다음세대는 나날이 당국의 의도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의 청년들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감시와 처벌 하에서도 K-드라마, K-뮤직에 환호하고 있으며 남한식 언어와 패션에 열광한다. 2020년 이후 나온 아래의 3가지 법은 북한의 다음세대가 수령께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2022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된 법이다. 원문에서 이 법의 사명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로 밝히고 있다. 북한당국이 정의한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를 가리킨다. 또한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



〈2022년 중반 교육용으로 배포된 북한 '학습제강' 영상. 평양 삼마고 급중학교 3학년 학생 두명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수감에 채워지고 있다. (BBC 방송이 공개한 샌드연구소 영상 화면 캡처)〉

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므로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선전물을 유입, 시청, 유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 8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9월 말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다음세대인 청년을 중시하는 것은 국사 중의 국사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이라고 평하고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 사상과 노선을 일관되게 틀어쥐고 언제나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어 그들이 자기의 본태와 핏줄을 똑바로 알고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다음세대가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가 '김일성 대가족'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오늘날 '김정은 대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취지이다.

3) 평양문화어보호법


2023년 1월 17~18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법으로 '괴뢰말'(남한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어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라고 정의한다. 이 법의 사명은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 언어생활 기풍을 확립하여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 나가는 것에 이바지하는데 두고 있다. 그러면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문화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언어생활 영역에 돌아가고 있는 괴뢰말투를 말끔히 쓸어버리는 것을 주되는 과녁으로 정하고 전 사회적인 투쟁을 강도 높히 벌려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다음세대를 위한 연이은 행사들을 개최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확인했다. “청년들이여 당이 불씨가 되면 불길이 되라!”라는 구호를 내세워 각종 돌격대(차광수청년돌격대, 김혁청년결사대, 리수복전위대)를 무어 몸 아끼지 말고 일하라고 독려하는가 하면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면서 인민군대와 청년돌격대들로 크고 작은 건설현장을 메꾸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구태의연한 것에 염증을 느낀다. 80년 가까운 북한당국의 사상교양은 내용과 형식에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이 고리타분하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 이상과 일상의 괴리,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공허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주장 등은 청년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재화의 절대부족과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사회 밑바닥까지 만연된 뇌물, 암거래, 부패 따위는 청년들의 열의를 떨어뜨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다.

권위주의적인 학교에서 아이들(소년단원)은 체제신봉을 고백하는 것을 부단히 강요당하고 선동적 과장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요구되는 충성심의 증거를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아주 노골적인 거짓말과 깡빠니아(캠페인)의 압박에 놓여 있다.

청년들도 본심은 아닌데 체제신봉을 입발림으로 고백하는 것, 정치집회와 행사에 참석하는 것, 청년동맹에 무조건 가입하는 것, 거짓 표어와 슬로건을 외치는 것, 왜곡된 진실을 묵인하는 것, 형식적인 생활총화에 기꺼이 동참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은 북한의 변하지 않는 현실이다.

북한의 다음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도 그들은 방황의 실존이다. 

북한, 사교육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함 승 수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특임교수)

북한은 철저한 국가 중심의 공교육 외에 사교육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북한의 90년대 이전에 이미 ‘개인지도’로 불리던 예체능 계열의 개인 교습이 존재했으나 이것도 일부에게 국한된 것으로 북한은 사교육이라는 개념조차 낯선 사회였다. 그러나 제1중학교 입학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되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개인교사를 구해 자녀의 입시를 준비하는 사교육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학교수, 교사, 대학생 등이 입시 과목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함으로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였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은 일관되게 사교육이 노골화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 북한 사회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사교육 현장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적인 과외선생이 등장하고 있다. 사교육을 받으려는 움직임은 평양을 넘어 주요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평양으로 과외를 받으러 오는 원정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특히 장마당 경제는 북한 교육의 시장화와 계층화를 촉발시키고 교육의 시장화를 용인함으로서 북한 사회에 용어조차 낯선 사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1. 사교육의 주체 (Who)

북한의 사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누구인가? 전통적인 사교육의 수요자들은 당 간부의 자녀들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최근에는 소위 돈주라 불리는 신흥 세력의 자녀들이 중요한 사교육 시장의 수요자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장마당을 통해 넉넉한 재력을 가진 학부모들은 계급과 권력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 아버지가 (비공식) 환전 브로커를 하며 돈을 벌고 있어 일년에 두 세 번 100위안(북한 돈 13만원 내외)을 교육비로 주고 있다(NDI- #D)”

“돈이 있어야 학교 생활이 수월하다. 권력있는 집안이라도 선생에게 먹을 걸 안 가져다 주면 애들을 이빠하지 않는다(NDI- #B)”

“부모가 부유하여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기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매우 낮았지만 김일성 소년 영예상 등이 주어졌다”(NDI - #C)

사교육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사들이며, 최근에는 사교육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강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일부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한 이들은 전문강사(49.7%)로부터 사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학교 교사(43.5%)를 앞질렀으며, ‘대학교수’나 ‘대학생’의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교사들은 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공급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열악한 급여 수준은 학교 교사들이 사교육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내어주고 있다. 학교 교원이었던 면담자(#2) 학교에서 봉급으로 0.2\$ 정도를 받았고, 이것으로는 절대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증언한다. 반면 사교육에 나서면 인당 30만원 내외의 사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력있는 교사에게 사교육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 된다. 또한 교사들의 삶은 학부모들로부터 일정 부분 후원을 받으며 유지가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후원의 대가로 인한 각종 불법이 전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공교육의 체계의 붕괴와 이들의 열악한 인건비가 사교육의 마르지 않는 공급 원인이 되고 있다.

“나는 월급으로 0.2\$를 받았다. (지금 장마당 환율로 생각하면) 교사의 월급이 3,000원대로 이는 쌀 0.5kg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북한의 평균 소득으로 인식되는 150,000원의 2%에 불과한 이들의 월급으로는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면담자#2)

“나는 어려서부터 사교육을 받았다. 처음에는 쌀을 드렸으나 나중에는 한달에 30만원 정도를 드렸다(면담자 #3)”

2. 사교육 시기 (When)

북한의 사교육 시기에 대한 질문은 크게 ‘언제부터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역사에 관한 질문과 ‘학생들은 언제부터 사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교육 시장의 역사적 측면이다. 우선 김정일의 수재론에 따른 제1중학교 입학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되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개인교사를 구해 자녀의 입시를 준비하는 사교육이 광범위 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수월성 교육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초래하고, 경쟁은 사교육을 시장을 활성화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의 측면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공교육 현장이 사교육을 촉발시켰다는 증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교육의 무게 중심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제1중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권력은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을 제1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암암리에 과외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도 제1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았다”(면담자 #3)

“뺨 있는 집 친구는 엄마 아빠 엄청 그렇게 막 열성내고 이 한국처럼 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애가 한 명 있어가지구, 그래서 학교도 제일 좋은 학교, 계속 그냥 과외를 받으면서 졸업시키고, 그 다음부터 부모가 탄탄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개 기반을. 그러면서 학교 때부터 돈을 투자해가지구 군대 보내서, 군대 가서 몇 년 있다 와서 대학교 보내서, 대학교에서 대학교 졸업시키고, 그 다음에 당 학교라든가 그런데 보내서 당 간부를 시키는 거예요”(NDI)

시기의 측면에서 평양의 학부모들은 제1중학교 입학을 위해 소학교(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하며, 평양 소재 종합대학 입학을 위해 중등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제1중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권력은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을 제1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암암리에 과외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도 제1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았다”(면담자 #3)

“사교육 받는 애들은 부모들이 교육 열정이 많으니까, 일단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전에만 수업하고 오후에는 맨날 동원시켰거든요, 뭐 아파트 건설, 농장동원 이런 거, 맨날 그런 동원하는 데 개네들은 안 해요. 우리 학급이 한 50명에서 특별히 엄청 잘 살구, 또 부모들이 열성두 있구 막 그런 애들 공부도

잘하는 애들 5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약간 특별반 처럼 빠져가지구 공부를 하구 다들 정말 좋은 데를 갔어요.(조현정 2022)

3. 사교육 장소 (Where)

최근 북한 사회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사교육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전문적인 과외선생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교육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가? 사교육의 일차장소는 가정으로서 북한 사교육은 학생이나 선생님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주위에는 서로 친척 방문이라 속이고 집에서 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학부모들이 제3의 장소를 구하여 원시적인 학원 형태의 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시적인 학원 형태는 평양 외에 인근 도시로 가는 원정 교육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소위 일타강사로 불리우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등록이 마감되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 등을 통해 북한 내부 사교육 시장이 폭 넓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들 과외는 다 자기집에서 하거든요. 사람이 많은 경우 빨리 등록해야 해요”(면담자 3)

“집에서 하죠, 집에서 상 퍼 놓고 앉아서, 우리 집은 컸으니까, 근데 선생님 집이 멀어서. 선생은 정말 수재인데, 그러면 공동으로 집 구매하는거 봤어요. 근데 싼 집을 사주지”(조현정 2022)

“연사군에서는 사교육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고, 청진시에 사교육이 발달돼 있어서 간부 아이들은 청진시로 보내서 사교육을 받는다. 권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돈이 있어야 교육도 시킨다.”(NDI)

4. 사교육 시장은 어떻게 공유되는가? (How)

북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직 북한 사회에 사교육이 보편화되었다고도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들은 일관되게 사교육이 노골화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 북한 사회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사교육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전문적인 과외선생이 등장하고 있다. 사교육을 받으려는 움직임은 평양을 넘어

주요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평양으로 과외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이러한 사교육 시장은 부모들끼리 수소문을 통해 그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앞서 원시적인 학원 형태의 사교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인기 수업의 경우 마감이 빠르다는 점은 전문적인 사교육 브로커의 등장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생 집에서 할 때 방안에 다 차면 부엌까지 앉혀놓고 다 해요. 그래서 막 빨리 등록 안 하면 자리도 없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조현정 2022)

5. 무엇을 배우는가 (What)

그렇다면 사교육 시장에서 이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전통적으로 북한은 방과 후 예술 위주의 소조활동이 있었으나 최근의 사교육은 대학입시 및 취업에 유리한 과목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NDI와 NK데일리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수학 - 영어 - 컴퓨터 - 국어 - 자연과학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와 수학이 중요한 것은 대학입시에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과목이라는 점에 있다. 곧 사교육의 주요 대상 과목이 된다. 컴퓨터가 높게 응답된 것도 의미가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표방하며 현대적 기술의 습득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업에 있어 컴퓨터와 자연과학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학부모들의 중요 교과목에 대한 인식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자연과학	도덕	미술	체육	기초기술	음악	역사	조선지리	혁명역사	컴퓨터	기타
응답	19	26	41	15	3	2	5	2	6	0	1	3	20	3

*출처 : NDI - NK 데일리 조사, 북한 내지 50명, 2023

이러한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학교와 교원들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 무너진 교육 구조 안에서 학부모들은 더 이상 학교만을 바라보며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컴퓨터 수업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 내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집에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국가와 학교의 교육적 역량에 대한 불신은 필

연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실제로 NK 데일리 조사에 의하면 학교가 아닌 사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현지 응답이 39.2%에 이르렀다.

6. 왜 사교육인가 (Why)

평양으로 과외를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사교육이 확장되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에 나오고 있고 교사임용을 앞둔 사범대학 학생들 역시 교사보다 사교육 시장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장마당을 통해 부를 획득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실제적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며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이다. 무엇보다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자녀들의 성공을 담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각종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보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을 받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군대도 토대 좋은 집안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알아서 편하고 좋은 군 병과로 빼내려고 노력한다. 적대계층 출신 학생들은 기술대학 정도는 진학이 되지만, 종합대학과 중앙대학으로 진학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의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해야 하며, 정무원 시험 순위가 높아야 한다.” NDI- F14

“제1중학교라고 수재학교 비슷한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가려구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고, 아마 초등학교부터 전문적으로 돈 내구 이렇게 계약하는 것처럼 해가지구 했던 거 같아요.”

“주말에는 내내 사회적건설에 학생들이 동원되다 보니 공부하는 학생인지 일하는 노동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공부하는 시간을 착취당하고 있다.” (면답자 3)

소결

사교육이 확장되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사교육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에 나오고 있고 교사 임용을 앞둔 사범대학 학생들 역시 교사보다 사교육 시장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장마당을 통해 부를 획득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실제적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며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거둬 일치되는 지점이다. 북한은 사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그 수혜자들이 소위 힘 있는 당 간부들의 자녀들과 돈주들의 자녀들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공교육이 사교육에 잠식당하고 있는 분위기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존의 인식이 무너지고, 교육의 책임은 곧 부모의 몫이며, 사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도 결국 자녀라는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면에서 사교육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부모를 중심으로 더 불평등한 방향으로 공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교육 시장 확산이 보여주는 세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북한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은 북한 교육에 있어서 부모주의(parentocracy)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주의'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에서 우위에 있는 부모들의 집요한 소원과 효율적 전략으로 자녀의 성적, 학력, 학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성향을 말한다. 한마디로 '부모주의'는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북한의 주민들 속에서 나타나는 '부모주의'가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부모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자생적 시장 논리'를 터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능력주의에 따른 사회자본 축적 욕구가 발현되고 있다. 그리고 돈주들은 축적된 사회·경제·문화적 자본을 자녀 교육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주의'가 북한의 부모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교육의 등장은 귀속지위 사회에서 성취지위 사회로의 변모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취지위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자체가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함으로써 북한의 교육 불평등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하지만 자녀들이 공부를 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인식의 확산은 교육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줌으로서 북한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의 균열을 촉발시킬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김정은은 경쟁을 용인하는 실용주의적 보편교육을 추구하고 있어 지역마다 설치된 제1중학교, 영재학교의 인기, 평양의 학군조성 등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같은 전통적인 최상위권 명문 대학 뿐 아니라 평양 외국어 대학 등 취업에 유리한 학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명문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자녀들을 과외를 시키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개별 지도라 불리는 소위 학원 형식의 사교육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의 시장의 확산은 북한이 추구해온 전통적인 평등교육 개념이 점차 해체되어 실력주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적 모습이라 평가할 만하다. 동시에 실력주의 교육은 성취지위 사회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사회 변화에 줄 영향들을 더욱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교육 시장은 북한의 교육 불평등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강요된 선택(Forced Option)을 주입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사교육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의 접근성과 교육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서 차별적 주류문화 및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내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입시와 취업 등 교육의 결과를 왜곡시킴으로서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구조를 공고한다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결국 경제, 사회, 문화적 헤게모니를 가진 자들은 이를 가지지 못한 일반 시민들에 대해 더 많은 자유와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며 교육을 독점한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불평등과 불편함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조리함을 두고 유니온 신학교 학장을 역임한 로저 신(Roger L. Shinn)은 '강요된 선택(Forced Op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원고가 한반도 전역에 하나님의 교육을 준비하는 작은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교육이 변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외침은 평화와 통일을 과제로 부여받은 한국교회에게 실제적인 도전과 이를 실행할 지침이 된다. 오스머와 슈바이처(Osmer & Schweitzer)는 기독교 교육이 공적 교육(Public Education)의 영향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 성찰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북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교육의 실제적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대안 연구를 해 나가길 간절히 기도한다. 

탈북민 수기 : 손이슬 자매

제 2화

우리 가족은 나를 탈북 시키기 위해서 수년간 여러 모로 길을 알아봤다. 그렇지만 탈북 브로커를 찾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곁에서 봤을 때 우리 가족은 나라에 충성하는 충성분자들이었기 때문에, 브로커를 찾는 우리의 노력이 상대방에게는 마치 유도질문인 것처럼 느껴졌고, 이로 인해 브로커 섭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넌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탈북을 시도했을 당시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북송되어 잡혀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 쉽게 탈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머니의 친한 친구를 통해 나를 아랫동네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브로커를 섭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생각만 하던 탈북을 결행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 곧 떠나는 나를 두고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저런 당부를 하셨다. 내가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신앙이나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지만,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머니는 처음에는 신자가 아니셨던 것 같기도 하다. 일본에서부터 익숙하셨기 때문인지 부적이나 미신적인 행동을 종종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한심

하다는 듯이 쳐다보셨던 장면도 떠오른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의 길에 오르는 나에게 하신 간곡한 말씀은 “돈도 권력도 다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당부였다. 단순히 이번 탈북의 성공 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생각하신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북한 땅에서 야곱의 고백과 같이 험악한 세월(창 47:9)을 보내셨을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은 결국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으셨고, 탈북하고 나면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그 사실을 꼭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부모님은 또한 나에게 강을 건너고서 어려움을 만나면 “꼭 십자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딸을 보내며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하셨을까... 당신들의 당부와 기도 덕분에 나는 훗날 어려움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고 십자가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남조선에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부푼 꿈도 있었지만, 나의 남조선 행은 북한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내가 먼저 탈북을 해서 자리를 잡으면 부모님까지 탈출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한편 부모

님께서는 나에게 죽어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때는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 김정일이 도망치는 사람을 보면 총으로 쏘아 죽이라고 지침을 내린 때였다. 도망쳤다가 붙잡혀서 들어오면 엄청난 수치를 겪거나 죽음을 맞거나 둘 중 하나였다. 탈북의 여정을 시작하는 나의 발걸음은 사뭇 비장했다. 그 앞에 어떤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브로커와 함께 고향에서 출발해 국경지역에 도착하기까지 3일이 걸렸다. 검문을 피해서 이동해야 했기에 버스로 고개를 넘고 내려서 걷다 어느 집에 머물러 잠시 쉬고 또 출발하기를 반복했다. 국경에 도착하면 바로 건너갈 줄 알았지만 우리는 국경 지역에서 약 한달 정도를 머물러 있었다. 브로커는 요즘에 경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경비초소에 군인들이랑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같이 넘어갈 의뢰인을 물색하기 위해 도강을 미룬 모습이었다. 한 명만 건너서는 수지가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새롭게 물색된 친구는 나와 동갑내기인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친구였다. 부모님 덕에 편하게 배움지 않고 살았던 나와 달리 그 친구는 살아남기 위해 달리기 장사¹를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해봤다고 했다. 그렇게 세 명이서 강을 건너게 되었다.

우리는 초저녁 6시경에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는 일은 생각보다는 수월했다. 이미 건너는 시간과 장소에 배치된 경비대원을 포섭해 놓았던지라 특별한 위협이나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연락이 예상보다 쉽지 않았다. 중국으로 넘어온 브로커는



그 지역에 있는 조선족 연락책이 우리를 인솔하도록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워낙 외진 지역이다보니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았다. 전화를 걸기 위해서 신호를 찾아 산 위로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신호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산, 저산을 넘나들어야 했다. 갑작스러운 연달은 등산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너무 힘이 들었다. 반면 브로커와 동갑내기 친구는 어찌나 산을 잘 타던지... 혈떡이며 그들을 쫓아가는 내 모습이 마치 닭 쫓던 개 마냥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게 고생한 끝에 드디어 조선족 브로커와 연락이 되었고, 조선족 브로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다. 조선족 브로커는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의 부인은 돈 벌러 한국에 갔다고 했다. 우리는 그의 아내가 남겨놓은 옷들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브로커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슬쩍 듣게 되었다.

“재는 남조선 보내야 할 아이요. 다른 애는 일없는 데...”

“보내는데 얼마인지 아니? 너가 받을 돈이 7천위안 정도인데 하면 돈이 더 된다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남조선에 보내서 바보같이 손해를 보려고 하니?”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듣지는 못했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나는 ‘남조선으로 바로 못가고 어디 일하

¹ 북한 내 도매장사를 일컫는 속어. 주로 국경지역에서 중국 물건을 받아 내륙 지방에서 팔고, 또 거기에서 농수산물을 사가지고 북 중 국경지대에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내는 장사법을 가리킨다.

는 데로 보내는가? 일을 시키더라도 결국 남조선에만 갈 수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아침 겸 점심을 냉면으로 먹고 택시를 타고 또 다시 길을 떠났다. 북한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브로커는 같이 가지 않고 그곳에서 헤어졌다.

우리를 태운 택시는 어찌나 멀리까지 가는지 밤이 되었는데도 쉬지 않고 달렸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긴장되었지만 워낙 녹초가 되어있었던 우리는 꾸벅꾸벅 졸았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조선족 브로커가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고속도로에 멈췄다. 그곳에는 다른 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갈아타야 하는 차라고 했다. 차에 타보니 앞좌석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눈치를 보니 부자지간인 듯 했다. 차가 출발하고 두 명의 남자 중 한 명이 우리에게 핸드폰을 넘겨주며 받으라 했다. 전화를 받으니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중국인의 아내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자기도 북한 출신이라고 했다. 반가운 조선말을 쓰는 여자의 입에서는 뜻밖에 황당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너희는 이제 시집을 가게 될 거야.” 그때의 나는 너무나 순진해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나는 남조선까지 가기로 약속하고 브로커를 따라 나선 것이니 결국에는 남조선에 가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속임을 당해서 팔려가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바로 남조선에 가지 못하면 조금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가도 되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이었다. 반면에 내 옆에 동갑내기 여자아이는 자기는 시집을 가도 괜찮다며 전화기를 돌려주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일단 계속해서 차를 타고 달렸다. 전화를 받고 마음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워낙 가는 길이 멀다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

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떠보니 창문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밖을 보니 산을 오르고 있었다. 온 밤을 달려서야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있는 집이었는데 큰 철문이 있었고 아주 큰 개가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 전화통화를 했던 북한 아주머니도 있었다. 그곳에서 며칠을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한 달을 머물게 됐다. 머무는 동안 동갑내기 친구는 선을 두 번 정도 보고 금새 시집을 갔다. 하지만 나는 쉽게 남편을 만날 수 없었다. 브로커 부부는 나를 아무데나 팔면 도망칠 것이 뻔하다고 보고 조심해서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들은 내가 접이식 책상을 접고 펴는 것을 보고 괜찮은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북에는 상다리를 접었다 펴는 식의 상이 흔치 않아 여태까지 왔던 북한 여성들 중에 보자마자 상다리를 접거나 펴는 이들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고모들이 일본에서 보내준 상을 집에서 썼기 때문에 당연하게 상을 접었다 펴곤 했었다. 그 모습을 본 브로커 부부는 내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며 더 신경을 써서 남편감을 고르려 했다. 당연히 나는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조선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시집 보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며 “몸뚱아리를 험하게 굴리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고 겁을 주었다.


결국 나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중국인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다. 속옷 한두 개를 넣은 가방을 들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린 뒤에 도착한 곳은 집인지 창고인지 쥐굴인지 모를 정도로 허름한 집이었다. 마중을 나온 덩치가 큰 여자를 따라 집에 들어 가보니 천장이 높은 집에 통나무 지붕 그대로 나무가 흰히 보였는데 수많은 거미줄들이 천장을 수놓고 있었다. 잠

시 멍하니 서있으니 남자 몇 명이 들어왔다. 우리를 마중 나온 여자의 남편과 내 신랑 될 사람이었다. 나를 산 그 사람은 키가 작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지는 순진하고 착해보였는데 손은 일을 많이 해서 매우 거칠어 보였다. 나를 마중 나온 남자와 그의 부인은 남편의 사촌형 부부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신혼집으로 원래 창고로 쓰거나 누가 왔을 때 잠시 머물 수 있게 빼놓은 여분의 집을 내어주었다. 그래도 신혼방이라고 핑크색 커튼이 하나 걸려있었다.

사촌 형은 엄청난 부자로 타 지역에서 가축을 구입해서 도축하여 납품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 비닐하우스도 여러 동 가지고 있었다. 남편은 그 사촌 형의 농장에서 일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잠깐 쉴 뿐,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사촌 형은 보수를 그리 많이 쳐주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다. 처음에는 양 사료를 주는 일조차 어려워 찢벌 댔다. 양들은 사료를 들고 가는 나를 보자마자 내가 꿈쩍도 못하게 달려들었다. 양들이 다리에 붙으면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에서 양들을 하나씩 떼어내고 사료를 뿌리고 도망치듯이 후다닥 우리에서 나왔다. 이후에는 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가꾸었다. 후텁지근한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일을 했다. 무거운 농기구를 종종 사용했는데 처음 만지는 농기구들이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농장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힘도 키워지고 내공이 다져지는 것을 느꼈다.

시댁 식구들은 어린 조카들까지도 나를 깔보았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 하루는 고구마를 굽는데 고구마가 타서 눌러 붙어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거 좀 탔네.”라고 말



하자, 조카가 듣고는 “이거 먹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생각해” 라며 깔보았다. 그 뿐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내게 “이런 거 먹어봤어?” 라며 무시를 해댔다. 내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는 아파트에 살고 우리 아빠가 은행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먹어보고 잘 살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쩌라며 꾸준히 나를 무시했다.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 중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인들 눈에 북한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못사는 나라, 사람 살기 힘든 나라에서 온 존재일 뿐이었다. 그동안 좋은 부모님 밑에서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누렸던 나는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사람과 살아야하는, 무시 받고 천대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루 빨리 남한에 가야하는데... 또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어서 빨리 구해 와야 하는데... 조바심 속에서 시간은 무심하게도 하염없이 흘러만 갔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야 그 시간이 내가 낮아지고 자아가 다뤄지는 시간임을 깨닫는다.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 그 중에서도 천대받는 처지로 지내면서 나의 자아는 깨어져나갔다. 그리고 외딴 곳에 팔려가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았던 한 탈북 여성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다. (계속) 

김일성 우상화에 ‘태양’ 떼는 북, 김정은엔 “주체 조선의 태양”



북한이 최근 김일성 우상화에서 ‘태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4월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보도에서 김정은을 ‘주체 조선의 태양’이라고 찬양했다. 그동안에도 북한 매체의 사진이나 영상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주체 조선의 태양’이라고 표현한 선전물이 식별되긴 했지만, 김일성 생일을 의미하던 ‘태양절’ 표현이 최근 사라지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김일성·김정은 등 선대에 대한 신격화 강도는 줄이되, 우상화의 초점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는 올해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 ‘태양절’이란 표현을 사실상 쓰지 않고 ‘4.15나 4월 명절’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 내부 곳곳에 설치된 경축 홍보·선전물에도 ‘태양절’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노동신문은 4월 14일 보도에서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기존의 ‘태양의 성지’ 대신 ‘애국의 성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일성 생일에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간부들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020년과 2022년에도 참배하지 않기는 했지만, 간부들마저 참배 일정을 빠뜨린 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참고: 연합뉴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중국, 탈북민 강제복송 지속…”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탈북민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가 4월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국 부분에 탈북민 문제가 언급되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계속 북한 사람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하고, 이어 복송된 탈북민들이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또는 죽음 등 가혹한 처벌

에 직면한다”고 설명했다. 22년 기준 1천 50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도 함께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강제 결혼을 통해 낳은 3만 명에 달하는 자녀들이 어머니가 서류 미비자란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고: VOA, 4월 24일)

정례화 되는 北 핵훈련… 핵역지 넘어 핵 반격능력 구축으로



북한이 4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지난 4월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짜-1-2’ 시험발사를 한 지 사흘만의 미사일 발사다.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북한은 해당 발사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초대형 방사포병부대를 운용하는 훈련이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김정은의 핵 무기 사용 최종 승인에 따른 핵 선제공격을 포함한 ‘중대한 사명’을 결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북한은 이번에 훈련한 최대 사거리 400km인 600mm 초대형 방사포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핵 경보 및 핵 운용 체계를 토대로 한 핵 훈련을 사실상 정례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은 ‘한미연합평대군종합훈련’을 핵 훈련의 배경으로 거론하여 향후 한미훈련을 명분으로 내세워 핵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핵 운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통일부, 탈북민 지원 ‘하나센터’ 직영 전환 추진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 소속으로 두고 직영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탈북민의 거주지 적응과 심리·진로 상담, 취업 지원 서비스, 사회서비스와 생활정보 안내 등을 제공하는 기관인 하나센터는 전국에 25곳이 운영중이지만 통일부 직영은 단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2곳은 예산 문제로 민간 위탁 중인데, 인력 관리에 한계가 있고, 센터마다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점이 문

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하나센터를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탈북민 신규 입국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일괄적인 직영 전환은 예산낭비이며, 지역 사정에 밝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나재단 측은 기존 하나센터 위탁 사업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 승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 KBS, 3월 26일)

평양에 1년만에 또 ‘뉴타운’... 김정은, 화성지구 2단계 준공식 참석



북한이 수도 평양에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주택) 준공식이 열렸다고 4월 17일 보도했다.

평양시 북동쪽 룡성구역 안에 위치한 화성지구는 인근에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과 대성산이 있어 그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지난해 1단계, 올해 2단계 완공으로 새로운 고급 주택 단지로 부상했다.

야간에 진행된 준공식은 불꽃놀이와 비행 공연까지 곁들여져 화려하게 펼쳐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준공 테이프를 직접 끊었고, 당·정·군 간부들도 총출동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평양에 매년 1만 가구씩 총 5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듬해 4월 송화거리와 지난해 4월 화성지구 1단계에 각각 1만 가구의 주택을 준공했다. 북한은 올해도 동일한 규모로 화성지구 2단계 주택 지구를 완공함으로써 매년 1만가구의 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3년째 이어가게 됐다. (참고: 연합뉴스, 4월 17일)

러시아 매체 “북한 해변 관광 상품 나올 예정”



〈북한 단체관광에 참가한 러시아 연해주 유소년 스키선수들〉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북한 해변 관광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4월 12일 (현지시간) 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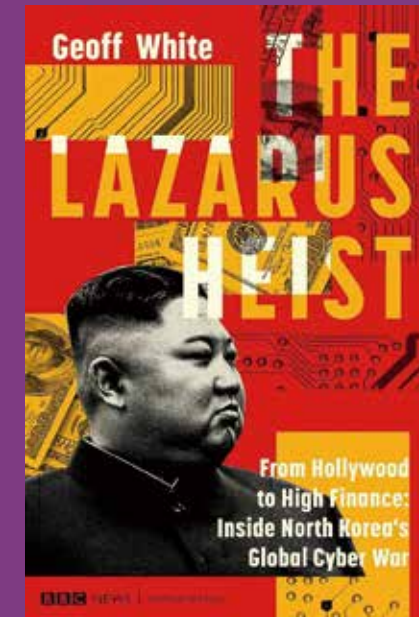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동해안 휴양지 원산은 모래사장 과 맑은 바닷물 등으로 유명하다”며 북한이 이 지역에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 해변을 둘러보는 여름 여행

프로그램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된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은 지난 겨울 3차례 진행됐다. 특히 지난 2월 첫 관광객들은 원산 인근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봤다.

북한 관광 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북한 관광이 대중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러시아 여행 블로그는 러시아인들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북한에 갈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며, 러시아인이 편안하게 느낄 리조트 등 부대 시설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KBS, 4월 13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The Lazarus Heist: From Hollywood to High Finance: Inside North Korea's Global Cyber War

저 자: Geoff White

출판사: Penguin Business

발행일: 2022년 8월 9일

가 격: 12.29\$
(Amazon, Paperback)

북한이 해킹을 통해 불법적인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기관의 연구와 여러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범죄 활동이 어느 정도 의미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IT 발달도 제한된 북한이 세계적인 해킹 강국이라는 설명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혹자는 서방 언론이 북한의 능력을 과하게 포장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곤 한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어 소개해본다. 영국의 탐사전문기자 제프 화이트의 저서 “The Lazarus Heist”이다. 번역하면 “라자루스 강도사건”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라자루스’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다. 저자는 북한의 여러 불법적인 사건들의 경위를 추적하고 관련 인들을 인터뷰하여 북한의 조직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이 책의 첫 시작은 인도의 한 은행으로부터 시작한다. 은행 직원의 메일로 악성코드가 담긴 링크를 평범한 메일인 것처럼 보내어 은행 시스템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ATM을 해킹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이를 통해 해커들은 카드 정보를 읽고 저장할 수 있었다. 해커는 이를 이용해 450여개의 복제된 직불 카드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29개국에서 복제된 직불 카드를 사용해 인출이 가능하도록 계정 잔액을 조정하고, 악성 스위치를 통해 ATM 인출을 승인 받아 국내외 거래 수만건, 1,150만 달러 이상




을 인출했다. 해당 사건은 조사 결과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뉴스 보도의 내용이다. 바로 2018년 일어난 인도 코스모스 은행 ATM해킹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추적한다. 컴퓨터 해킹이야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북한은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ATM 인출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인터넷 속에 숨어들어있는 범죄자들의 또다른 네트워크, 다크웹(Dark Web)을 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곳을 통해 북한은 익명으로 세계 각국에서 해당 범죄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다. 세계 각국에서 모종의 보수를 약속받은 참여자들은, 전달받은 대로 2018년 8월 11일 오후 3시에 동시에 ATM기기로 향했다. 그리고 약 2시간 13분 만에 세계 29개국에서 1만 2천여회의 인출이 이루어졌다. 다크웹의 특성상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감을 주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인출된 돈의 출처나 행방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은 사실 일반적인 뉴스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책은 우리가 뉴스로만 접했던 북한의 해킹 사건들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북한의 해킹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준다. 특별히 표면적으로만 알려진 북한의 해킹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피해를 깊이 있는 취재와 관련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려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례로 이 책은 북한의 해킹 사례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인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도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사건의 정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니 픽처스 직원과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 피해 사례들을 세세하게 취재하며 그 사건이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생활에까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를 통해 이 책은 북한의 해킹 활동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협적인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에는 현재까지 주로 경제적 이유로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해킹 기술과 인력이 향후 분쟁과 전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그 파급력이 어떠할지, 또한 우리 일반 개인들도 언제든 북한의 해킹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동안 북한의 해킹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 책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북한의 해킹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었거나 잘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하고 흥미로우면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올 만한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그 동안 북한의 해킹에 대해 뉴스나 보도를 통해 많이 접했던 이들에게도 더욱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해당 이슈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비록 번역이 되지 않아 영어 원서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당 도서를 소개해본다. 

1 최근 북한 소식에 따르면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는 가운데 출신 성분의 영향은 감소하고 경쟁과 실력주의 풍토가 장려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중학교 때부터 대학 입학에 유리한 제1중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출신 성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사회가 경험했듯, 실력주의와 경쟁이 강조되는 사회는 인간성의 말살, 공동체정신 결여 등 수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력이 강조되는 북한의 교육이 경쟁 지상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의식 수준 향상에 북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은 12년제 무상교육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은 학교측의 물자요구로 인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학생들은 토끼가죽, 구리, 파철, 파유리 등의 상납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생들로부터의 물품 수급과 난방비 수급 등이 교사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물자 조달 여부에 따라 학생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거나 부요한 학부모와 교사가 밀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빈부에 따른, 그리고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북한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물질로 인해 상처받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우상화 교육과 반기독교 교육의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탁아소 시절부터 김일성가문 우상화 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의 공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으로부터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에 이르기까지 과목을 가리지 않고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남한과 미국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의 아동문학을 보아도 남한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매우 수위 높은 욕설이 여과 없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선교사들에 대한 악의적인 묘사도 여전합니다. 학생시기 인격이 한창 발달할 시기에 행해지는 이러한 증오, 우상화 교육은 학생들의 인격발달과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북한의 우상화교육과 증오교육이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4 제삼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 발표된 미 국무부 보고서에는 2022년 초 반까지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이 1,500명이었다고 밝혔으며, 2023년 10월에는 600여명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초 중국에 정착하여 살고있는 탈북자들 사이에서 ‘북송’에 대한 소문이 돌아 탈북민들이 가슴을 졸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삼국에서 긴장가운데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신분의 안전을 확보할 길이 열리도록, 제삼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혹은 현지 성도들과 연계되어 복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북한선교현장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장사역자들은 선교지에서 사역과 보안유지를 위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현장 사역자들을 위로·격려 하시고, 가정에 늘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폐쇄적인 환경에서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선교사들은 늘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 해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몇몇 방법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미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속 지혜를 주시어 새로운 사역을 열어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억류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들의 구명을 위한 교계의 각급 단체의 성명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언론을 통해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7 보릿고개를 맞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5-6월은 지난 가을 수확한 식량이 바닥나고 새롭게 보리를 수확하기 직전인 춘궁기입니다. 지난해 북한 각지에서 식량난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가을 양곡 추수가 예년에 비해 나아졌고 러시아를 통해 식량을 공급받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올해도 식량난에 대한 우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생산량의 문제보다도 시장을 통한 식량 거래 금지 및 양곡판매소 운영에 따른 유통 상의 문제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주민들이 춘궁기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식량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와 NGO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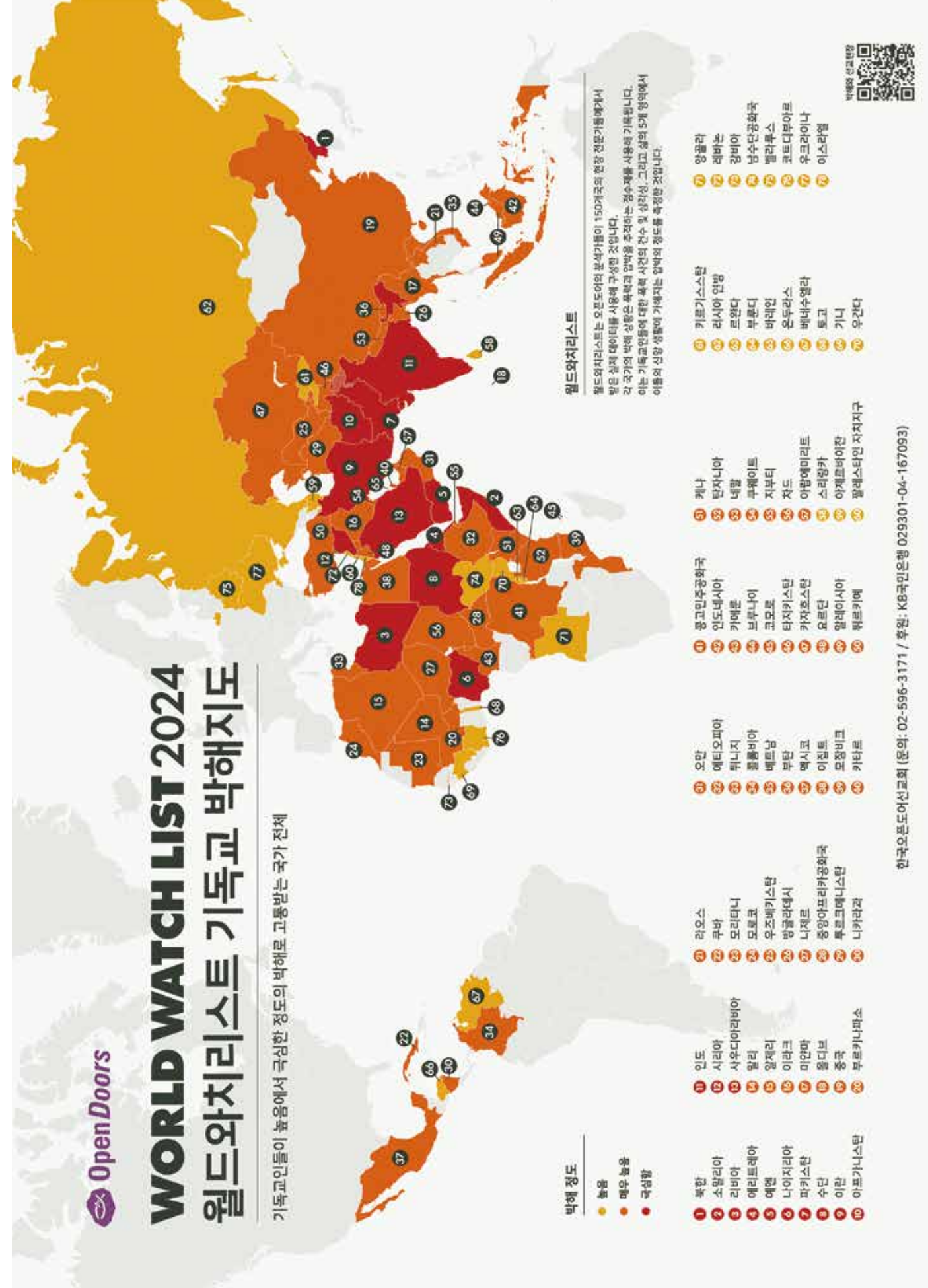
8 국내입국 탈북민의 수가 감소중인 가운데, 최근 탈북민의 국내정착을 책임지고 있는“하나센터”에 대한 통일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민간 운영 방식에서 남북하나재단 직영으로 바꾸겠다는 발표인데, 투명성 확보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정부 직영으로 이관되는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나센터를 비롯하여 탈북민의 국내정착을 돕는 기관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탈북민의 참된 이웃이 되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 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9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생명의 강 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지만 여전히 인적 왕래는 제한적인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은 막힌 담을 넘어 북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될 수 있도록 방송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청취 장애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북녘의 주민과 성도들이 강화된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단속 열풍을 잘 피해서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4월 30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